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확대

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법제화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간호안전활동 등에 대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월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의 후속 조치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해 운영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년의 비공식적인 환자안전사고를 계기로 2016년에서야 환자안전법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자료가 없고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2017년 12월 구축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하고,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일명 '적신호사건'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구체적인 의무보고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향후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존의 환자안전분부를 국가환자안전분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증병원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 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2026년까지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방안으로는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보건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환자안전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추진한다.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순으로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한다. 환자안전활동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및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고(故) 정중현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

보건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의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정)' 캠페인과 사과법 도입을 추진한다. 사과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건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관련 학부생 등 예비 보건 의료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중점을 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세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간협, 전국 임직원 직무연수

조직 및 정책 혁신방안 논의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임직원 직무연수를 4월 27~28일 KNA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간호협회 제37대 집행부와 함께 같은 배를 탄 전국 대표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라며 "우리들에게 대표자의 소임을 맡겨준 회원들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대한간

호협회 조직, 의사결정과정 및 임원의 역할'에 대해 이지은 대한간호협회 운영본부장이 발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 곽윤희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관리방안'에 대해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재무위원장(공인회계사)이 발표했다.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위원회에서 전국 간호사 배치 달기 캠페인 추진 등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중앙회 임원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단은 그룹을 나눠 지부 조직 및 산하단체 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임직원 직무연수를 KNA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을 가졌으며,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27일 오후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 및 실무자협의회가 열렸다. 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중앙회 국장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회원들

록 시스템 운영, 대의원총회 업무 표준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개인정보회의 및 실무자협의회가 열렸다. 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중앙회 국장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회원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 종합안내서

심평원 'HIRA 빅데이터 브리프'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 의료 빅데이터 최신 동향과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HIRA 빅데이터 브리프는 2017년 3월 장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발간되고 있다. 4월 말 발간된 제2권 2호에는 '인공지능 의료 영상 진단모형 연구 경험과 활성화 방안' 동향과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 연구' 등 분석사례, '임원 에피소드 구축 방법'이 수록됐다.

HIRA 빅데이터 브리프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동향' HIRA 빅데이터 분석 사례' HIRA 빅데이터 분석 가이드'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 동향'에서는 국내·외 보건 의료 빅데이터 관련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 ICT기술 개발·도입·구축·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이슈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요약해 제공한다.

'HIRA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서는 학계, 의료계, 산업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사례를 수록해 연구자와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HIRA 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는 2018년에 새롭게 추가된 섹션이다. 심평원 청구자료에 대한 구조 및 처리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시계열 분석, 에피소드 자료 생성 등 통계분석 방법을 테마별로 다룬다.

책자는 보건 의료 관련 기관, 학회,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되며,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 data, hira.or.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나4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간호사신문 (02) 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2018년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사업수행기관(간호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 교육안내

1)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기본과정) : 보수교육 8시간 인정

일시	1차	2018년 7월 6일(금)
	2차	2018년 7월 21일(토)
	3차	2018년 10월 5일(금)
	4차	2018년 10월 20일(토)
인원	차수별 80명(선착순 마감)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교육대상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기관별 1~2명 이내 신청가능)	
신청기간	2018년 5월 30일(수) 10시 ~ 6월 1일(금)	

2)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교육과정(치매조기검진과정) : 보수교육 8시간 인정

일시	1차	2018년 7월 7일(토)
	2차	2018년 7월 14일(토)
	3차	2018년 10월 12일(금)
	4차	2018년 10월 19일(금)
인원	차수별 80명(선착순 마감)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교육대상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기관별 1~2명 이내 신청가능)	
신청기간	2018년 6월 18일(월) 10시 ~ 6월 20일(수)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오프라인RN교육(오프라인보수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신청 및 결제

※ 교육신청 시 '추가항목'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선택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자 중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교육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한간호협회 교육국(Tel. 02-2206-1904, 1903, 1901)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참가 안내

학술대회 개요

대회명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일정	2018년 9월 16일(일) ~ 9월 18일(화) * 9월 16일 : 단체등록 * 9월 17일(전일) ~ 18일(오전) : 학술대회 * 9월 18일(오후) : 기관방문
장소	일본 도쿄, United Nations University
주제	Creating New Values in Nursing (간호에서의 새로운 가치 탐구)
통역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록비	400,000원 (USD 350)
신청마감	5월 31일(목) 18:00 * 등록신청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문의처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국 T.02-2260-2548 korn@koreanurse.or.kr

논문초록 모집 안내

논문초록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novation in direct care Health promotion Leadership and management New values in nursing educat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dvancing quality of nursing care Creating new values in other areas of nur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 초록 A4 1장 이내(양식 참조) *타 학술지 또는 타 학술행사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본 학술대회 주제에 맞는 내용이어야 함 *지정된 언어 및 양식에 맞게 기술되어야 함 *저자 1명 당 1~2편 초록 제출 가능함 *IRB 필요한 논문인 경우, IRB 심사 완료되어야 함
논문초록 조건	
신청마감	2018년 7월 2일(월) 18:00
심사기간	2018년 7월 3일(화) ~ 7월 17일(화)
심사결과	2018년 7월말경, 개별통지
사용언어	논문초록(영어), 구두발표(한국어-동시통역), 포스터(영어) * 구두발표 PPT 자료 제출기한 : 2018년 8월 14일(화)
신청자격	2018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 회원

* 논문초록(구두 및 포스터) 발표자 지원 : 선착순으로 선정 예정임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논문초록 발표자(구두, 포스터)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표자 지원 금액관련 내용은 6월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연수프로그램 안내

1. 연수프로그램 (3박 4일 / 9.16~19)

소요 경비	1,190,000원	
비용 기준	45명	
일정	9월 16일(일)	OZ 102 09:00 ~ 11:20 (인천-나리타) 학술대회 등록 / 오다이바
	9월 17일(월)	학술대회 참석
	9월 18일(화)	학술대회 참석 / 기관방문 메이지 신궁,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9월 19일(수)	아사쿠사, 나가사키, 활거, 긴자, 스카이트리 전망대 OZ 105 19:35 ~ 22:05 (나리타-인천)
포함사항	* 호텔(2인 1실 기준), 항공, 차량, 여행보험, 기사 가이드	

* 연수경비는 항공료, 호텔(2인 1실), 식사비(일부 불포함), 여행보험, 차량, 관광, 팀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수경비에 총회 등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단체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일정 변경 불가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좌석-블록으로 예약된 좌석이므로, 좌석 업그레이드 시 개개인의 추가 요금 발생 및 항공미일리지 공제됩니다.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됨)
* 연수프로그램 비용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연수프로그램 신청

- ▶ 신청마감 : 2018년 5월 31일(목) 18:00
- ▶ 연수프로그램 신청 여부는 학술대회 등록신청서 양식에서 체크 표시
- ▶ 신청자에 한해 상세일정 안내문을 이메일로 추후 공지할 예정

3. RNcard 사용자 지원

- ▶ 지원대상 : 하나 RNcard 출시일부터 행사종료일까지의 기간(2017.2.14. ~ 2018.9.19.) 동안 하나 RNcard로 30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단, 기 RNcard 회원 환원금 수혜자는 수혜 이후부터 사용 실적 반영)
- ▶ 지원인원 :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능력에 많은 순서로 우선 지원
- ▶ 지원방법 : 30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에게 1인당 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40만원 지원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등록비 350달러)